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표지 탐색하기

※ <담벼락 신호>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담벼락 신호'를 보고, 떠올린 생각을 쓰세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물건에 대한 사랑.
겉모습이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간에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 /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낡고 녹슨 고물 자전거라도 말이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① 이 책에서 작가가 쓰고 싶었고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요?

⇒

② 이 책의 작가는 사랑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①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난 새된 소리를 내지르며 팔다리를 휘저었다.
 · 찬장이 딱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 "이번엔 친구들이 밥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차례야. 밥솥의 남자 친구 주걱부터 해 볼까?"
 · 친구들 목소리가 지우개로 지운 듯 싹 사라졌다. 동우 울음도 찾아들었다.
 · 발길을 돌려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자꾸만 자전거가 눈에 아른거렸다. 그냥 빨리 갔다 올까? 달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 (나) · 아빠는 내 머리에 꿀밤을 주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 □□ □□이네. 진짜 다 닳았는데. 예잇!"
 담벼락을 발로 걷어찼다. 내 발만 아팠다.
 · 가게 안쪽에 내 자전거가 있었다. 아줌마에게 ㉡□□□□을 말했다. 물론 자전거를 버렸다고 하진 않았다. 잠깐 밖에 세워놨는데 없어졌다고만 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의 기본형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새되다 () · 잠기다 () · 찾아들다 () · 아른거리다 ()

- ①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다. ② 무엇이 희미하게 보인다 말다 하다.
 ③ 거칠거나 들뜬 기운이 가라앉아 잠잠해져 가다.
 ④ 목이 쉬거나 약간 막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다.

2) 제시된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 ㉡: ()

- ㉠: 어떤 일이 하도 묘하고 신통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②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아빠 ()엔 야채가 든 장바구니가 쓰러져 있었다.
 ② “여보! () 걸린 할머니가 또 왔어. 이번엔 밥솥이야. 아휴, 진짜. 나 좀 갔다 올게.”
 ③ “뭐여, 이눔아! 할아버지가 이거 잡어서 니 애비 키운 겨. 이거 없었으면 니두 없는 겨.” / 할아버지는 그물을 높이 쳐들며 성호에게 ()를 낚다.
 ④ 그리고 성호는 둥그렁고 거무스름한 ()를 발견했다. 검은 ()는 옆집 마당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⑤ 몇몇 친구들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또 몇몇은 차라리 오줌 스티커가 낫겠다며 장난쳤다. / ()을 뚫고 욕심 많은 현수가 나섰다.
- (나) 상자는 낡고 아주 볼품없었다. 책이나 만화에서 보던 멋진 보물 상자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하지만 성호는 왠지 진짜 보물 상자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경우는 많으니까.

1)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발치 : 발이 있는 쪽. • 통바리 : 투명스러운 핀잔.
- 형체 :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
- 복새통 :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
- 치매 :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 주로 노인에게 나타남.

2)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나)에서 찾아 쓰세요. ⇨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책 속으로 ①_담벼락 신호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머리가 눈처럼 새하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친구도 아니고, 감나무 집 할아버지도 아닌, 생판 모르는 할머니가 범인이었다니! 기가 막혀 그저 멍하니 할머니를 보고만 있었다.

할머니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누런 이를 드러내며 날 보고 씨익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벽에 낙서를 시작했다. 어이가 없었다.

난 콧김을 식씩 뿜으며 할머니한테 소리쳤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웠는데, 왜 이러세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뒤돌아 씨익 웃고는 낙서를 했다.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랐다. 낙서를 지우느라 아팠던 팔과 어깨가 욱신거렸다.

(나) "담벼락에 낙서하는 노인네 있잖아. 사정이 딱하긴 하더라." / "왜요?"

아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장애 가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평생 찾아다녔는데 여태 못 찾았구나 봐. 그때부터 노인네가 아들이 쓰던 글씨를 연습해서는 아들한테 집으로 돌아오라고 담벼락에 편지를 쓴대. 아들이 집을 찾을 수 있게 화살표도 그려 놓고. 아들한테 보내는 신호라나 뭐라나."

아줌마 이야기에 눈물 맺힌 할머니 눈이 다시 떠올랐다. 저만치 떨어진 담벼락에 할머니가 그린 신호가 보였다.

1) (가)에서 '나'(기범)는 어떤 '할머니'가 담벼락에 낙서하는 것을 보고 화냈다가 (나)에서 그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나'(기범)에게 충고하는 말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할머니'가 동네의 집 담벼락에 낙서하고 다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책 속으로 ②_전기밥솥의 장례식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가 이래봐도 장례식만 백 번 넘게 했으니 걱정 마. 봄이네가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덕분에 난 장례식 박사가 됐어. 그 사람들은 싫증나면 무조건 버렸거든."

찬장이 이어 말했다. / "자, 지금부터 전기밥솥의 장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밥솥은 떠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렴.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내 장례식에 내가 참석하다니. 거기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니.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더 황당할 터였다. 말을 시작하려니 진짜로 죽는 게 실감났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 "음, 난 지금 몸이 엄청 차가워. 너희도 알잖아. 난 기쁘면 몸이 뜨거워지고 슬프면 차가워지는 거. 그러니깐 난 지금……"

(나) "밥솥이 다칠까 봐. 아픈데 더 다치면 어떡해."

봄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말했다. / 봄이 말에 내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엄마! 밥솥이 따뜻해." / "밥솥이 살았나 보네. 응?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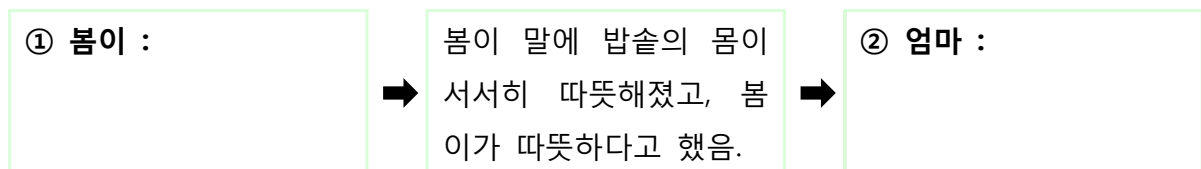
엄마가 봄이를 일으키며 말했다. / "아이고, 봄이네 밥솥이었구나."

세탁소 아줌마가 엄마에게 다가오며 알은체했다. / 엄마가 아줌마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 "수리점 가려고 잠깐 밖에 내놨는데 없어졌지 뭐예요. 한참 찾았어요."

1) (가)에서 ‘전기밥솥’이 장례식을 치르게 된 이유와 ‘밥솥’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여 쓰세요.

- 전기밥솥이 장례식을 치르게 된 이유 :
- ‘밥솥’의 마음 상태 :

2) (나)에서 ‘봄이’와 ‘엄마’가 ‘전기밥솥’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정리해보세요.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책 속으로 ③_해적 강철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뭐 해? 형. 이 섬이 왜 큰물섬인 줄 알아?" / "몰라."

성호는 심드렁하게 대구했다. 심통이 났다. 은호가 친구들과만 노는 바람에 하루 종일 심심했다. 그렇다고 은호에게 놀아 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했다.

이를 알 리 없는 은호는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떠들었다.

"형, 놀라지 마. '큰 보물이 숨겨진 섬'이라 큰물섬이래. 강철이 섬에 큰 보물을 숨겨 놔대. 친구들과 강철도 찾고 보물도 찾기로 했어. 보물 찾으면 엄마, 아빠를 도울 수 있잖아. 이것 봐. 탐정 수첩에 강철 후보도 써 놔어. ㅋㅋㅋ."

(나) "10계명의 첫 글자를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읽어 봐."

성호는 눈을 빛내며 은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강, 철, 은, 빨, 간, 대, 문, 예, 산, 다."

성호가 놀란 눈으로 은호를 봤다. 바보라고 여겼던 동생이 조금 똑똑해 보였다.

은호가 똑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다.

"큰물섬에 ㉡빨간 대문 집은 하나밖에 없어."

성호와 은호는 동시에 발짝 일어났다. 역시 겉모습만 보고는 속을 알 수 없다. 둘은 한 목소리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르며 안방으로 달려갔다.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낼 여름이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큰물섬이 더는 심심하지 않을 터였다.

1) (가)에 나타난 '성호'와 '은호'의 마음 상태를 정리해봅시다. 내용을 완성하세요.

<p>① 성호 : 은호가 친구들과만 노는 바람에 하루 종일 심심해서 심통이 났고, 그렇다고 ()</p>	<p>② 은호 :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떠들었고, 섬 이름이 큰물섬인 이유를 성호에게 말해 주었고, ()</p>
--	--

2) (나)에서 '성호'와 '은호'가 찾았던 ㉠은 누구이고, ㉡은 어디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 _____

㉡ : _____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책 속으로 ④_침묵 게임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때였다. 현수가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 내며 소리쳤다.

"한동우! 넌 원래 말 못 하잖아. 그럼 네가 당연히 1등이네!"

현수 말에 친구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별처럼 웅웅대는가 싶더니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 / "동우가 유리하네. 불공평해."

"선생님은 말도 못 하는 애랑 게임 시키면 어떡해. 동우가 상 받겠다."

"동우를 위한 게임이야, 뭐야. 이 게임 무효야. 무효!"

친구들이 동우에게 뽀족하게 말했다. 몇몇 애들은 동우에게 욕을 퍼부었다.

(나) 드디어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스티커를 떼 시간이었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모두 후다닥 스티커를 떼어 선생님한테 냈다. 현수가 가장 먼저 냈다. 내가 가장 늦게 냈다. 아니었다. 동우 얼굴에 아직 스티커가 남아 있었다.

난 공책 귀퉁이에 이렇게 써서 동우에게 건넸다.

하루 종일 스티커 때문에 힘들었잖아. 빨리 떼어 버려.

동우가 공책에 답장을 써서 내게 주었다.

난 다른 때보다 좋았어. 너희랑 똑같아서.

동우가 작은 초승달 눈으로 웃었다.

1) (가)에서 '현수'와 '반 친구들'은 원래 말 못 하는 '동우'가 침묵 게임에서 유리하다며 불공평하다고 뽀족하게 말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말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동우'가 스티커를 떼지 않고 다른 때보다 좋았다고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책 속으로 ⑤_달려라, 왕번개!

※ <담벼락 신호>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전거 진짜 후졌다. 새우야, 네 거야? 꼭 박물관에서 튀어나온 거 같아. 하하하." / 한 친구가 내뱉은 말에 친구들이 모두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아, 아니. 내 거 아니야." / "그럼 누구 거? 진짜 고물이다."

친구들은 고물이라는 말에 또 왁자하게 웃어댔다.

"엄마 심부름 땀에 빨리 가야 해."

난 앞도 안 보고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다.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등 뒤에서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았다. 부랴부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대로 달렸다. 이날따라 찌꺼대는 페달과 체인이 돌며 나는 쇠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나) "우리가 시우 왔구나야. 끄옥."

"할아버지 또 술 마셨어?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아침에 네 엄마 성화에 못 이겨 차를 팔러 갔더니마안, 너무우 낡아 폐차를 시킨다는구나야. 끄억. 죽은 네 외할미하고 아끼고 아껴어 처음 산 차인데에. 끄옥. 그걸로 애들 학교도오 데려다 주고오, 여행도오 다녔었는데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르울. 끄으옥. 푸후-. 너. 왕번개는 자알 타고 다니냐? 꺼억."

1) (가)에서 '나'(시우)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앞도 안 보고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등 뒤에서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아서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그대로 달렸음.

2) (나)에서 '나'(시우)의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속상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다음은 <담벼락 신호>에 실린 이야기 세 편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떠올리며 등장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쓰세요.

담벼락 신호	침묵 게임	달려라, 왕번개!
①	②	③

2) 다음 그림은 '전기밥솥의 장례식'에 나온 '봄이네 집'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을 하나 정해서 하는 일과 생각을 상상하여 써 보세요.





담벼락 신호 (초등 5단계)

단비어린이 | 김명선 글·그림



정답과 해설

1쪽	<p>1) (예) 담벼락에 신호가 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신호인지 궁금했다.</p> <p>2) (예) 괴상한 낙서들이 가득한 담벼락 앞에서 제멋대로 뺀 새하얀 머리와 화려한 옷을 입은 할머니의 오른손에 목덜미를 잡힌 남자아이가 팔다리를 버둥대며 놀라고 있다.</p> <p>3) ① 가족 사이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 물건에 대한 사랑 등 ‘사랑’에 대한 이야기 ②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p>
2쪽	<p>1) 새되다-①, 잠기다-④, 잦아들다-③, 아른거리다-②</p> <p>2) ㉠ : 귀신이 곡할 노릇, ㉡ : 자초지종</p>
3쪽	<p>1) ① 발치 ② 치매 ③ 통바리 ④ 형체 ⑤ 복새통 2) 차원</p>
4쪽	<p>1) (예) 기범아! 생판 모르는 할머니가 집의 담벼락에 낙서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약이 올랐을 것 같아. 하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모르고 화를 내며 소리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먼저 왜 낙서를 하는지 여쭙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p> <p>2) 갑자기 사라졌던 장애 가진 아들이 집을 찾을 수 있게 화살표로 편지를 쓴 것이다.</p>
5쪽	<p>1) • 이유 : 전기밥솥이 고장 나서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 • ‘밥솥’의 마음 상태 : 자신의 장례식에 자신이 참석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음.</p> <p>2) ① 고장 난 밥솥이 아프다며 다칠 것을 걱정하는 등 소중히 대하고 있음. ② 봄이가 한 말에 영향을 받아 ‘밥솥이 살았나 보네’라고 말했다.</p>
6쪽	<p>1) ① 은호에게 놀아 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음. / ② 탐정 수첩에 강철 후보도 써 놨다며 즐거워했음.</p> <p>2) ㉠ 성호와 은호의 할아버지 ㉡ 성호와 은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p>
7쪽	<p>1) (예) 현수와 반 친구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말문을 달아 버린 동우에게 심한 말을 하며 욕까지 퍼붓고 있다. 친구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보기 위해 미술 시간에 짝꿍 모습을 관찰하며 그리며 침묵 게임을 한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p> <p>2) 말을 못 하는 동우와 침묵 게임을 하는 반 친구들이 똑같았던 하루였기 때문에</p>
8쪽	<p>1) 친구들이 자전거를 보고, 꼭 박물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진짜 후졌다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자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p> <p>2) 처음 샀고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를 폐차시킨다고 해서</p>
9쪽	<p>1) ① ‘나’(기범)와 아빠가 은행나무 집을 향한 화살표를 담벼락에 그리는 장면 ② ‘나’와 동우가 색칠하기 힘들다는 뜻을 서로 눈으로 주고받고 환하게 웃는 장면 ③ ‘나’(시우)가 노을빛이 새 무리에 내려앉은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장면</p> <p>2) 답안 생략.</p>